

세계를 감각하고 나를 인지하는 장치

신예슬 | 음악평론가

그건 한동안 내 신체에 이식된 보철 중에서도 가장 무거웠고, 압도적으로 컸으며, 한눈에 어떤 물체라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복합적인 장치였다. 뒷면이 돔 형태로 이루어진 원기둥 형상의 내부엔 스피커들과 디스플레이, 노트북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어림잡아 전체 높이는 2m, 지름은 1m쯤 되는 듯했고, 이식 후 몸에 느껴지는 저항감을 생각했을 때 무게 또한 30kg쯤은 훌쩍 넘을 듯했다.

그걸 이식하기 위해 거쳤어야만 했던 준비 절차도 단순하지 않았다. 이 장치를 내 몸에 이식하기 위해서는 걸음 속도와 키를 내비게이터에게 알리고, 이후 몇몇 안전수칙을 파악해야 했다. 준비 절차는 비단 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도 적극 개입했다. 내비게이터는 이식 대기자들에게 『관점의 매뉴얼』이라 명명된 작은 책자를 건넸다. 거기엔 스스로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째는 경구 같은 물음들이 가득했다.¹ 그 책을 충분히 읽은 뒤에야 이식 대기자들은 마침내 후니다 김의 <디코딩 되는 랜드스케이프>에 정착된 ‘데이터스케이프’를 몸에 이식할 수 있었다. 주어진 시간은 15분 남짓이었다.

감각의 보철

15분간 이식자들은 인간의 눈과 귀로 세계를 읽어내지 않는다. 불투명한 막으로 덮인 시야, 귀 높이를 빙 둘러싼 여덟 개의 스피커는 인간 신체에 내장된 감각기관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계를 인지하지 않도록 신체와 세계 사이를 슬쩍 가로막는다. 데이터스케이프를 이식하고 미술관 내부를 천천히 돌아다니는 동안, 인간의 눈과 귀를 대신해 공간에 대한 시청각적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데이터스케이프의 머리 꼭대기에 놓인 라이다 센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라이다 센서는 360도로 빠르게 회전하며 공간에서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정량적 정보(벽, 기둥, 움직이는 물체의 위치)를 읽어낸다. 그리고 데이터스케이프는 라이다가 입수한 공간 데이터를 인간 신체로 감지할 수 있도록 가시·가청 영역으로 옮긴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주의할 만한 대상은 없는지 등, 조감 시야를 보여주는 데이터스케이프 내부의 디스플레이와 8채널 스피커는 나를 둘러싼 공간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이식자들은 디스플레이를 통해 내 등 뒤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는지를 선명히 본다. 동시에 내게 다가오려 했다가 사라지는 대상을 소리로 듣는다. 디스플레이 속 푸른 덩어리가 나와 가까워질수록 사인파 소리는 더욱 선명해지고, 벽에 가까워질수록 화이트노이즈 소리는 짙어진다. 그 사이에서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끊임없이 맞추는 것처럼 제각각의 기원을 가진 구체음들이 불쑥 나타난다. 서로 다른 밀도와 무게를 지닌 이 소리들은 제 나름의 공간감을 형성한다.

영역으로서 존재하는 화이트 노이즈와 움직이는 오브제처럼 존재하는 사인파 소리, 그리고 언제나 다른 세계로 연결되더라도 할 것처럼, 찰나에 잠시 투입했다가 사라지는 구체음들. 조금은 붕 뜬 기분으로 미술관을 걸으며 낯선 소리들에 둘러싸였다 풀려나기를 반복하고, 나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계를 관찰한다.

그러자 ‘당연히 이럴 것이다’라고 막연히 믿어왔던 공간과 움직임, 소리의 관계는 다르게 구성된다. 몸은 어딘가 덜컹거리고, 움직임은 수월하지 않으며, 외부에 대한 반응도 마치 버퍼링이 걸린 것처럼 조금 느려진다. 내 신체로 감각했던 세계와 데이터스케이프로 읽어내는 세계는 결코 같지 않다. 장치를 이식한 뒤 바라보는 세계는 끊임없이 움직이며 소리내기를 멈추지 않는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탓에 평형감각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율된다. 그저 눈 자체의 해상력을 보완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경이 아니라 ‘다른 해상력’을 생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경을 착용한 것처럼, 신체는 경미한 멀미를 겪는다. 오영진의 표현처럼 “육체와 기계 사이의 불화”²가 생겨난다.

신체는 이 낯선 기계가 선사하는 감각에 잠시 저항하지만, 곧 둘 사이에서 나름의 접점을 찾기 위한 적응 방법을 모색한다. 몸의 리듬과 데이터스케이프의 움직임이 서서히 동기화되고, 데이터스케이프의 방식으로 나를 둘러싼 세계를 보고 듣는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월해진다. 하지만 그 인지·감각체계가 몸에 이식될 무렵, 의심의 방향은 다른 쪽으로 이동한다. 어쩌면 울렁거리는 것이 내 신체가 아니라 세계였다면. 본래부터 어지럽고 움직이며 소리내기를 멈추지 않았던 세계를 이제야 인지한 것뿐이라면. 그 세계를 내 눈과 귀로 읽어낼 수 없었던 것뿐이었다면. 우리가 익숙하게 감각하고 인식해 왔던 그 세계는 정말로 믿음직한 것인가?

인식의 렌즈

<디코딩 되는 랜드스케이프> 속 공간은 라이다 센서를 거쳐 디지털적으로 디코딩되고, 그 정보들은 다시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 디지털을 거쳐 세계를 읽어내는 일은 일견 낯설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인간 삶을 둘러싼 정보들은 수많은 센서를 통해 입수되며, 우리가 세계를 인지하는 경험 안에는 온갖 종류의 디지털 디바이스가 침투해 있다. 그 센서와 디바이스들은 각자의 감각체계와 논리로 세계를 읽어내고, 우리는 이들에 깊게 의존한다. 때로 우리는 그들의 구조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도 못한다. 하지만 이 작업은 그 디지털적 존재들을 우리의 감각 표면으로 끌어내 그들이 읽어낸 풍경을 경험해 볼 것을 제안한다.

1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얼마나 인지할 수 있는가?”, “감각에 임플란트 되어 있는 디지털 장치들”, “감각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2 오영진, 후니다 김·오영진·신예슬과의 대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2021년 11월 15일.

그런 의미에서 <디코딩 되는 랜드스케이프>는 일견 시각적으로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과 소리풍경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처럼 보인다. 작은 단행본 크기의 디스플레이 속에 가득 들어찬 공간의 이미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되어 씬 없이 전자음을 올려대는 소리 풍경. 데이터스케이프는 분명 내 눈앞에 실재하던 세계를 디지털로 읽어내 재구성한다. 그러나 이 작업의 목적이 있다면, 그건 다른 방식으로 풍경을 보여주거나 재구성하는 것만이 아니다. 여기서 ‘스케이프’는 감상의 목적지라기보단 작업의 핵심부로 다가가기 위한 통로에 가깝다. 풍경은 나 자신을 잊은 채 관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각자가 관찰한 세계를 담아내는 반사체, 혹은 거울처럼 존재한다. 데이터스케이프는 나를 둘러싼 공간의 크기와 실시간으로 내 주변을 맴도는 대상 사이의 거리를 읽는다. 비어있을 수도, 가득 채워질 수도 있는 그 공간을 오래 떠돌수록 더 선명히 감각되는 것은 나와 대상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공간에 개입해 적극적으로 세계를 인지하는 ‘나’라는 주체다.

이 작업이 마침내 지목하는 어떤 한 지점이 있다면, 그건 지금의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인지와 감각이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후니다 김은 공간을 디코딩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식자들이 신체 감각을 스스로 디코딩해볼 수 있도록 크고 작은 트리거들을 만든다. 데이터스케이프를 이식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삶을 둘러싼 디지털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보충하기 위함만이 아니다. 이는 이를테면 안경이 이미 씌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전혀 다른 종류의 안경을 하나 더 써보는 것처럼, 우리의 인지·감각 조건을 되돌아보게 하려는 목적으로 다른 감각을 신체에 중첩해보는 일이기도 하다.

15분간 신체적, 인지적 이물감을 느낀 이후, 몸에 남는 잔상은 외부 장치가 제거됨으로써 느껴지는 작은 해방감만이 아니다. 사람에 따라 감도는 다르겠지만, 이식자들의 신체와 정신엔 이물질이 차지했던 빈자리가 고스란히 남는다. 내 눈을 다시 사용하게 됐지만 360도로 바라보던 시야가 200도로 좁아졌다는 사실, 내 귀를 다시 사용하게 됐지만 내게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것들이 조용해졌다는 사실에 대한 생경한 인식이 형성된다. <디코딩 되는 랜드스케이프>가 계획한 다음 경험은 바로 장치가 몸에서 빠져나갔을 때 비로소 인지하게 되는 낯선 감각과 그에 대한 물음이다.

예컨대, 내가 본다고 믿었던 것들은 무엇인가? 내가 보고 듣는 세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된 것인가? 내 눈과 귀는 어떤 종류의 센서인가? 내게 이식되어 있는 외부의 센서들은 무엇이고, 나는 이들을 어떻게 활용해 왔는가? 나의 인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이 물음들은 데이터스케이프를 이식하기 전 읽었어야만 했던 『관점의 매뉴얼』에도 훌쩍 빠져 있었으며, 경험을 마친 뒤 이식자들의 손에 쥐어지는 작은 이야기책 『바라보고 읽어내는 장치』에도 숨어 있던 질문들이기도 하다.

바로 이런 의문이 후니다 김의 <디코딩 되는 랜드스케이프>라는 총체적인 경험이 지향하는 목적지다. 이 작업은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재하는 것에 접근하며, 인간 신체로 쉽게 감각할 수 없는 것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또 다른 감각하는 기계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세계에 늘 존재했지만 쉽게 감각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 하나의 렌즈를 끼워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것은 확정적인 단언으로 결론지어질 수 없고, 언제나 대명사가 가득한 거대한 물음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결국 나를 둘러싼 세계와 나의 신체, 인식과 감각에 대한 자기 의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간 작곡

<디코딩 되는 랜드스케이프>에서 이식자들은 자신이 인식하는 시공간을 구성하는 주체가 된다. 이는 작가가 말하는 ‘공간 작곡’이라는 개념과도 연결된다. 후니다 김은 스스로를 ‘공간을 작곡하고 공기를 소조하는’ 작가라 표현하는데, <디코딩 되는 랜드스케이프>는 이런 그의 관점을 작업 안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도 읽힌다.

공간 작곡이라는 행위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거기서 어떤 소리가 나게 할지 결정하는 일이고, 이제까지 후니다 김이 전작들에서 작곡된 공간들을 형성해 왔다면, 이번 작업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공간 작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식자들은 화이트 노이즈를 듣기 위해 벽으로 다가가고, 소리의 궤적을 추적하기 위해 한 자리에 가만히 서서 대상의 변화를 감지하거나 뒤쫓고, 때로는 탐입하는 구체음을 기다린다. 공간 안에서의 움직임은 소리로 귀결된다. 데이터스케이프는 그 공간 작곡이라는 행위를 타인이 경험할 수 있는 형태로 물화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 작곡된 소리는 나타나는 동시에 사라지고, 기록되지 않으며, 모두의 움직임이 다른 만큼 복제와 재현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현재에 의존한다. 이 작업은 내가 인지한 실재를 바라보고 의심하게 만드는 만큼, 필연적으로 내 눈앞에 놓여있고 내 몸으로 겪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단단히 뿌리내린다. 시간 위에서 운동하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세계는 늘 운동하고, 그 세계를 구성하는 나 또한 단 한 순간도 멈추지 않은 채 현재를 갱신한다. 소리는 그것을 증거하고, 움직이는 것은 늘 소리낸다는 사실이 덩달아 떠오른다.

이러한 지점에서 이 작업이 겨냥하고 있는 시공간이 어디인지도 더욱 분명해진다. <디코딩 되는 랜드스케이프>는 다분히 현재에 발생 가능한 인지와 감각을 탐구하고, 과거의 기록도 아닌, 미래의 예견도 아닌 지금의 경험에 초점을 선명히 맞춘다. 이것은 없는 것을 생성하고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식자들이 직면한 현재 속에 잠재된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읽어내기 위한 프로세스다. 작가는 자신의 작업이 ‘무언가에 대한 은유가 아니라 그저 실재하는 세계, 있는 대상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곤 한다. 이는 이 작업의 출발점과 종착점에 놓여 있는 단단한 목표이기도 하다.

트리거

후니다 김의 작업은 이식자들에게 즉각적으로 경험되지만, 그 작업의 지향점을 한 눈에 짚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센서, 디지털, 사운드스케이프, 랜드스케이프, 환경 인지 장치인 데이터스케이프, 신체 등 수많은 매체와 개념이 작업 내부에 거미줄처럼 한데 엮여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식 안내서와 『관점의 매뉴얼』, 육중한 크기를 자랑하는 데이터스케이프 두 대, 내비게이터의 말, 15분간의 경험, 그리고 사후에 경험을 복기하며 함께 읽을 수 있는 이야기책 『바라보고 읽어내는 장치』까지. 이 작업을 구성하는 개념과 요소들은 한 손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정도다.

하지만 이 작업은 그 복잡한 연결망만큼 제각각의 진입로를 만들어 낸다. 누군가는 언어화된 질문을 통해, 누군가는 어색해진 몸짓을 통해, 누군가는 자신의 일상을 뒤덮고 있는 디지털 디바이스와 데이터스케이프가 어쩌면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의심을 통해, 누군가는 들려오는 소리의 궤적을 뒤쫓는 경험을 통해 이 작업이 던지는 질문을 만난다. 이 총체적인 작업 안에서 자신에게 작동할 수 있는 작은 연결고리를 단 하나라도 찾아낼 수 있다면, 그 고리는 이 작업 내부의 연결망으로 하나둘씩 뻗어나가며 다른 질문들을 점차 활성화할 것이다.

〈디코딩 되는 랜드스케이프〉는 관망해야 하는 작품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체와 인지에 기입되는 경험으로서 작동한다. 그리고 그 이후, 실재를 바라보는 감각에도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 작업 곳곳에 놓인 트리거가 언제 어떻게 발현될지는 알 수 없다. 이 장치를 이식한 15분간의 경험이 별다른 감흥 없는 신기한 체험으로만 남아있을 수도 있고, 크게 고민할 필요 없는 낯선 일로 치부될 수도 있다. 기억에서 빠르게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서의 경험이 아주 작은 방아쇠가 되어 언젠가 멈춰서는 순간을 만들어 낸다면,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미묘한 기시감을 느끼며 이 경험을 복기하는 때가 온다면, 〈디코딩 되는 랜드스케이프〉에서 심어둔 어떤 인식은 그제야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방아쇠가 당겨진 이후, 나와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감각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신예슬은 음악비평가이자 헤테로포니 동인이다. 동시대 음악에 관한 호기심으로부터 비평적 글쓰기를 시작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음악학을 공부했고, 음악을 기록하고 되살리는 매체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음악의 사물들: 악보, 자동 악기, 음반』(서울: 작업실유령, 2019)을 썼다. 2013 객석예술평론상과 2014 화음평론상을 받았고, 음속 허구 연구 모임, 비평지 『오늘의 작곡가 오늘의 작품』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 Device that Perceives Us as We Feel the World

Shin Yeasul | Music critic

Even among the various appendages, I had grafted onto my body until then, it was overwhelming for its size and too complex to identify at first glance with any certainty. The inside of the cylinder, with its dome-shaped top, was filled with speakers, displays, and laptop computers. I would have guessed its overall height to be about two meters, its diameter one, and, judging by the sense of resistance I felt when it was grafted onto my body, it must have weighed well over thirty kilograms.

The preparatory process I was put through before the transplant was far from simple, too. In order to graft the device onto my body, I had to tell a Navigator my walking speed and height, then familiarize myself with a variety of safety regulations. Preparation not only applied to the body, but intervened actively in issues of knowledge. Navigators handed everyone awaiting a transplant a booklet titled *Perspective-Implant Manual*. It was full of short, aphoristic questions that made you doubt your own perceptions.¹ Only after fully reading it were transplantees-in-waiting able to graft the “Datascape” in Hoonida Kim’s *Landscape being Decoded* onto their bodies. They were given about fifteen minutes with it.

A sensory prosthesis

For fifteen minutes, transplantees no longer read the world through human eyes and ears. An opaque, vision-blocking membrane and eight speakers surrounding the head at ear level stealthily block off the body from the outside world, preventing the former’s innate sensory organs from perceiving the latter as before. After they receive the Datascape transplant and wander slowly around the museum, it is the LiDAR sensors at the crown of the Datascape’s head that acquire audio-visual information about the surrounding space instead of human eyes and ears.

1 For an example of the questions follows: “What does it mean to hear?” “How much of the surrounding environment do you perceive?” “Digital augmentation of the senses.” “What makes your senses firm?”

LiDAR sensors, widely used in the field of self-driving vehicles, rotate rapidly through 360 degrees, reading numerous pieces of quantitative data (walls, slopes, position of moving objects, etc) within a space. Then, the Datascape transfers spatial data acquired by the LiDAR into the realm of the audio-visual, allowing them to be sensed by the human body. The Datascape's internal display and eight-channel speakers, showing a bird's eye view of what is where, and what objects demand vigilance, convey information on the space around us in real time.

Through a display, transplantees clearly see what is approaching behind their backs, and how fast. At the same time, in the form of sounds, they hear things that try to approach them, then disappear. The closer the blue mass on the display approaches me, the more clearly I hear the sine wave noise; the closer I move towards the wall, the thicker the white noise becomes. Amid all this, various concrete sounds, each with its own origin, suddenly emerge, as if someone is constantly adjusting the frequency on a radio. These sounds, each with a different weight and density, form their own sense of space. The white noise that exists as a realm, the sine wave sounds that exist like objects, and the concrete sounds that rush in for a brief moment before disappearing again, as if they will, at some point, become connected to another world. I walk around the museum feeling as if I am floating in a cloud, repeatedly surrounded, then released again, by strange sounds; observing the endlessly moving world with me at its center.

Then, the relationships between spaces, movements and sounds that I have vaguely taken for granted until now take on a different composition. My body starts rattling somewhere, my movements become clunky, and my reactions to the outside world slow down, as if experiencing buffering. The world I sense through my body and the world read by the Datascape are totally different. The world I observe after my device transplant is constantly in motion, constantly making noises. The noises coming in from all directions cause my sense of balance to become tuned in a slightly different way. As if I am wearing glasses made not to supplement my eyes' own resolution but to create a different resolution altogether, my body feels a faint motion sickness. To borrow the words of Oh Youngjin: a "discord between body and machine"² emerges.

For a moment, the body resists the feelings presented by this unfamiliar machine. Soon, though, it starts looking for a method of application that can provide a kind of point of contact between the two. The rhythm of the body and the movements of the Datascape slowly become synchronized, and the process

of seeing and hearing the world around me in the same way as the Datascape becomes gradually easier. But when the sensory-perception system is grafted onto the body, my suspicions are re-oriented. What if the nausea comes not from my body but from the world itself? What if the world was dizzying, constantly in motion and endlessly noisy to begin with, and I've only noticed it now? What if I hadn't been able to read it with my own eyes and ears? Can we really trust the world we've become so used to sensing and perceiving?

Lenses of perception

The space within *Landscape being Decoded* is digitally deciphered through LiDAR sensors; the resulting data change once again into forms that humans can sense. Reading the world by way of digital technology may appear unfamiliar at first glance, but it is actually something that happens in our lives all the time. The data surrounding humans are acquired through myriad sensors, while our experience of perceiving the world has been infiltrated by a wide range of digital devices. These sensors and devices each read the world according to their own sensory systems and logic, and our reliance on them is profound. Sometimes, we are unable to perceive their structures, or to notice their existence. But this work draws these digital entities to the surface of our senses, proposing that we experience the landscapes they read.

In that sense, *Landscape being Decoded* appears at first glance to convert visual landscapes and soundscapes into digital form right before us. The spatial images filling a display the size of a small book; the soundscapes reconstituted in totally different ways and emitting constant electronic noise. The Datascape reads and reconstitutes the world that clearly existed before our eyes. But if this work has an aim, it is not just showing or reconstituting landscapes in different ways. Here, the suffix "-scape" is more like a passage through which to move closer to the center of the work than a destination for viewers. Landscapes are not objects for us to observe while we forget ourselves, but reflections of, or mirrors onto, the worlds observed by each of us. The Datascape reads the size of the space around us and the distances between the objects hovering around us in real time. The reason we feel this space, which may be empty and may be full to bursting, more clearly the longer we wander it is the distance between ourselves and other objects; and the entities that are ourselves, intervening in space and actively perceiving the world.

2 Oh Youngjin, Conversation with Hoonida Kim, Oh Youngjin, and Shin Yeasul, MMCA Seoul, November 15, 2021.

If there is a final destination that this work points to, it is the perceptions and feelings of humans observing the current world. In order to reveal these, Hoonida Kim goes beyond the decoding of space and creates big and small triggers that allow transplantees to decode bodily feelings for themselves. The purpose of transplanting the Datascape is not merely to supplement our awareness of feelings and the digital world surrounding our lives. It is also to add another layer of feelings to our bodies, as if fitting us with a completely different type of glasses in order to make us aware of the glasses we are already wearing, with the aim of letting us reflect upon our own perceptual and sensory conditions.

After fifteen minutes experiencing foreign bodily and perceptual feelings, the afterimage that remains on our bodies is more than just a sense of liberation at the removal of the external device. Though each transplantee doubtless feels it differently, the vacancy left by the foreign object on their bodies and minds remains intact. A new and unfamiliar awareness appears of the fact that though they are using their own eyes again, their fields of vision have narrowed from 360 to 200 degrees; and that though they are using their own ears again, the things approaching and retreating from them have fallen silent. The next experience planned by *Landscape being Decoded* is one that explores the unfamiliar sensations experienced by transplantees once the device has left their bodies, and questions about these feelings.

For example, what were the things they believed they were seeing? What is the world they see and hear made of? What kind of sensors are their eyes and ears? What were the external sensors transplanted onto their bodies, and how have they been using them? These questions, which cause them to doubt their own perception, are also scattered throughout the *Perspective-Implant Manual* that they had to read before the Datascape transplant, and hidden in *Through The Looking Apparatus*, a small storybook handed to them after the experience.

These doubts are the destination towards which the overall experience of Hoonida Kim's *Landscape being Decoded* is oriented. The work approaches the real, not the imagined, suggesting things that cannot easily be sensed with the human body. In this respect, the use of an additional sensory device is essential, delivering an experience like putting in contact lenses in order to find "something" that has always existed in our world but is hard to sense. This cannot be nearly summarized by any concrete term; inevitably, it ends up in big questions full of pronouns. This is because it begins with self-doubt regarding the world around us, and our bodies, perceptions and senses.

Space composition

The transplantees in *Landscape being Decoded* become entities that constitute the space-time they perceive. This is linked to the concept of "space composition" that the artist talks about. Kim describes himself as an artist who "composes space and molds air." *Landscape being Decoded* can be read as a direct embodiment of this perspective.

The act of composing space is one of deciding how to constitute space and what noises to make in it. If Kim has formed composed spaces in his previous works, in this one, he provides a system for others to compose their own spaces. Transplantees approach walls in order to hear white noise; in order to trace the trajectories of sounds, they stand still in one place to detect or pursue changes in objects, or sometimes wait for intruding concrete sounds. Movements within spaces result in sound. The Datascape also appears to reify the act of spatial composition into forms that can be experienced by others.

But these composed sounds disappear even as they appearing, go unrecorded, and are impossible to duplicate or reproduce given that everyone's movements are different. This depends on the present. This work makes us observe and doubt the reality that we perceive; as such, it is firmly and inevitably rooted in the "now" that we see with our eyes and experience with our bodies. Movement above time never stops. The world moves constantly, and we, who form a part of it, ceaselessly update the present. Sounds prove this, and the fact that moving things always make noise emerges in conjunction with this.

At this point, it becomes even clearer where the time-space for which this work aims is located. *Landscape being Decoded* explores perceptions and feelings that are quite likely to appear in the present, focusing clearly on experience of the now rather than on records of the past or predictions of the future. This is not a process for creating things that aren't there, but one for reading in a different way the latent worlds within the present faced by transplantees. The artist sometimes calls his work "not a metaphor for anything but just a different way of showing the actual world and existing objects." This is the solid goal at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work.

Triggers

Hoonida Kim's works are experienced immediately by transplantees, but identifying where they are headed is, at first glance, not easy. This is due to the tangled web of multiple media and concepts that exist within them, from sensors to digital technology, soundscapes, landscapes, the environmental perception mechanism of the Datascape, and the body. Not to mention the transplant information booklet, the *Perspective-Implant Manual*, the two hefty Datascapes, the words of the Navigators, the fifteen minutes' experience, and the storybook *Through The Looking Apparatus*, to be read later, together, while reviewing the experience. The concepts and elements comprising the work are too many to count on one hand.

But this work creates many access points in accordance with its complex web of connections. Viewers encounter the questions asked by the work, some through verbalized questions, some through newly-awkward bodily motions, some through the small suspicion that the digital devices in which their everyday lives are covered may not be all that different from the Datascape, some through the experience of tracing the trajectories of sounds heard. If they can find even just one small link, within the entirety of the work, capable of activating them, that link will spread through the channels of the works' inner network, one by one, gradually activating other questions.

Landscape being Decoded exists not just as a work to be observed: it works as an experience to be input into our bodies and perceptions. After that, we hope, it will also affect our senses as they perceive reality. There is no knowing when the triggers placed throughout the work will manifest themselves. The fifteen-minute period of having this device transplanted onto our bodies may remain merely as a novel experience, and may be seen only as an unfamiliar happening, not worthy of much reflection. It may vanish from our memories before long. But if the experience here becomes just the smallest trigger and creates, at some time, a moment's hesitation; if, at a totally unexpected moment, we feel a subtle sense of déjà vu that brings our thoughts back to the experience, it may be only then that the seeds of perception planted by *Landscape being Decoded* have started taking effect. Once that trigger has been pulled, we and our perceptions and feelings of the world will never be the same again.

Shin Yeasul is a music critic and a member of Heterophony. Shin's critical writing started from a question on contemporary music. She studied musicolog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as awarded The Auditorium Prize for Criticism in 2013, The Hwaum Criticism Prize in 2014. Shin authored *The Things of Music: Musical Score, Automatic Musical Instruments, and Recording* (Seoul: Specter Press, 2019). She is participating in the Sonic Fiction research group and working as an editor of Korean Contemporary Composers and Compositions.

